4일차(7·8차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
분명한 명령으로 구현하고
학생의 피드백으로 완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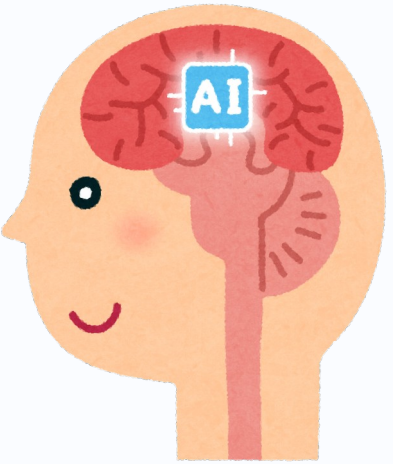


오늘의 목표: 학생이 쓰고,
담당자가 계속 운영하는 서비스

7차시 50분 · 휴식 10분 · 8차시 50분

지금까지 배운 것, 한 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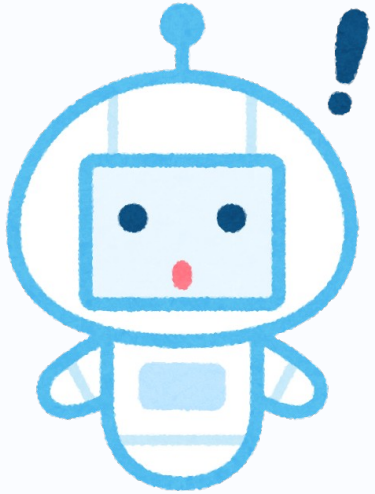
AI와 일하기	맥락을 주고, 작은 단위로 맡기고, 확인하기
만드는 준비	폴더·버전·주소·호스팅·스킬을 구분하기
만드는 과정	구현·검토·테스트·배포를 나눠 진행하기
오늘의 연결	아이디어와 학생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복습 질문: “배포 완료”만으로 학생의 신청 성공까지 확인됐을까요?

누가, 언제, 무엇 때문에 불편한가요?

학생	1학년 학생이 휴대전화로 동아리를 찾습니다
불편	내 학년이 신청 가능한 동아리인지 모릅니다
아이디어	대상 학년·시간·교실을 보고 바로 고르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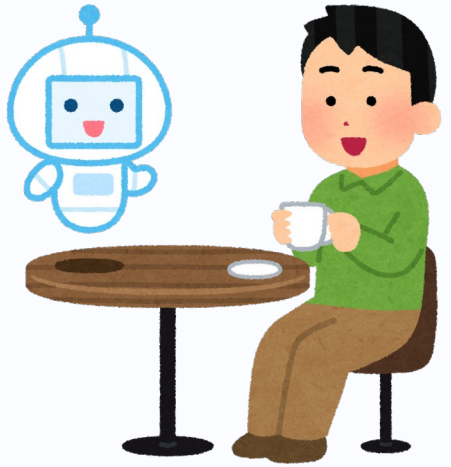
이렇게 요청해 봅니다

동아리를 찾다가 포기하는 이유를 가정해 줘.
확인할 질문과 가장 작은 개선안을 제안해 줘.
실제 학생 의견으로 단정하지 말아 줘.

아이디어 한 줄: “누가 겪는 어떤 불편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좋은 아이디어를 작업 지시로 바꾸기

대상과 목적	고등학생이 모바일에서 동아리를 고릅니다
화면과 동작	대상·일정·비용과 신청 버튼을 보여 주세요
완료 기준	신청 뒤 결과와 다음 행동이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요청해 봅니다

남해고 동아리 신청 상세 화면을 가상 자료로 만들어 줘.
대상 학년·일정·교실과 신청 결과 안내를 넣어 줘.
실제 명단을 입력하지 않고 미리보기를 보여 줘.

한 요청에 목적·필요 정보·동작·완료 기준을 함께 적습니다

작게 맡기고, 통과 기준을 정하기

이번 작업	상세 화면의 신청 안내 한 곳만 고칩니다
통과 조건	필수 항목 누락·중복 클릭·결과 안내 확인
작업 순서	미리보기에서 확인한 뒤 공개합니다



이렇게 요청해 봅니다

신청 버튼과 결과 안내만 고쳐 줘.
기존 메뉴·기록·관리자 기능은 보존해 줘.
모바일과 키보드 동작을 확인해 줘.

“다 됐어요” 대신 확인한 화면·동작·남은 문제를 받습니다

담당자 말고, 학생의 입장에서

찾기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나?”

선택하기 “언제, 어디서, 얼마에 참여하지?”

끝내기 “신청됐나?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이렇게 요청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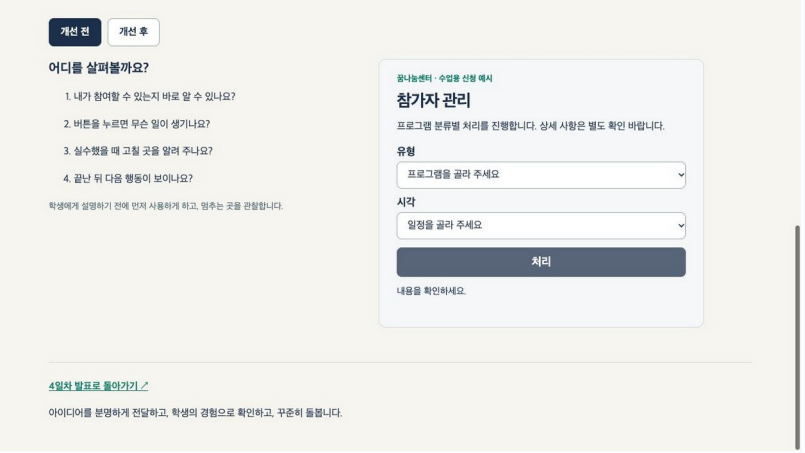
1학년 학생이 휴대전화로 쓴다고 생각해 줘.
교육과정·행정 용어 때문에 막히는 곳을 찾아 줘.
학생이 이해하는 말로 수정안을 보여 줘.

사용자 경험은 첫 방문부터 신청 뒤 안내까지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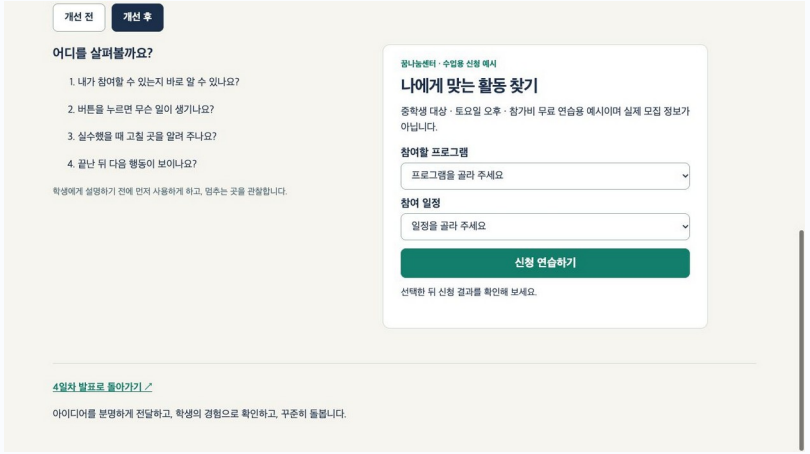
학생이 이해하는 화면으로 바꾸기

직접 만든 교육용 신청 화면 · 실제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개선 전: 업무 용어와 모호한 버튼



개선 후: 참여 조건과 다음 행동



문구·입력 항목·오류 안내·완료 화면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설명해 주기 전에, 써 보게 하기

과제 “참여할 활동을 골라 신청 결과를 확인해 봐”

관찰 어디서 멈추고, 무엇을 다시 누르는지 기록

질문 “어디가 헷갈렸어? 무엇을 예상했어?”



이렇게 요청해 봅니다

학생 사용 테스트 과제와 관찰표를 만들어 줘.
버튼 위치나 정답을 알려 주는 말은 빼 줘.
완료·멈춘 곳·학생 표현을 따로 기록하게 해 줘.

오늘은 동료로 연습하고, 실제 학생의 피드백으로 다시 검증합니다



학생의 말을 수정 작업으로 바꾸기

관찰·학생 표현	구체적인 수정	다시 확인할 과제
“됐는지 모르겠어요”	완료 안내·다음 행동 표시	신청 결과를 스스로 설명
대상 안내를 못 찾음	대상·일정 정보를 앞에 배치	참여 가능 여부 찾기
실수 뒤 다시 시작함	오류 위치·입력값 유지	잘못 고른 항목 수정

교육용 예시 · 실제 학교의 운영 기준은 확인해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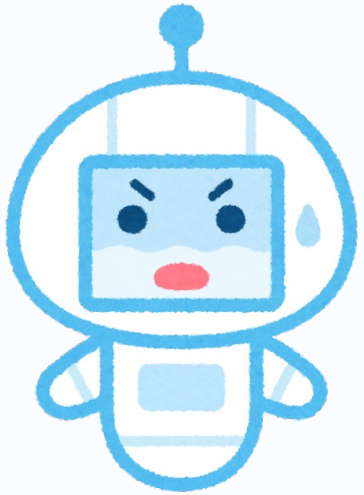
수업용 가상 피드백입니다 · 수정 뒤 같은 과제로 다시 테스트합니다

갑자기 신청 버튼이 먹통이라면?

상황 동아리 신청 화면은 열리는데 다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 모든 학생인지, 특정 기기인지 구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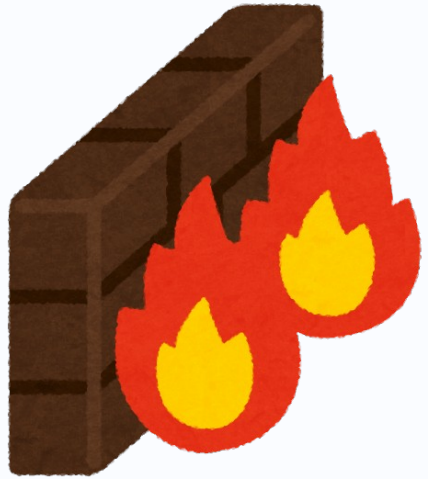
목표 학생의 불편을 줄이며 원인을 확인합니다



무작정 새로 고치거나 여러 수정을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다

처음 5분에 할 일

영향 줄이기	문제 기능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잠시 제한
기록 남기기	시간·주소·기기·증상·직전 변경을 정리
담당자 연결	운영 담당자에게 알리고 대체 방법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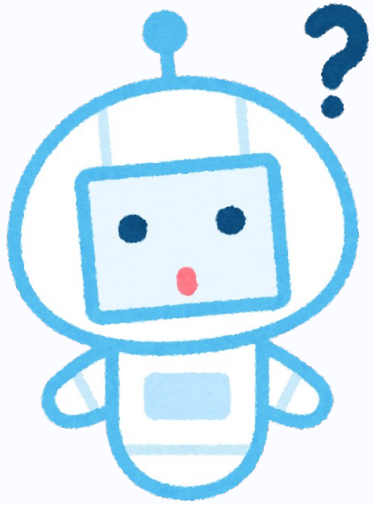
이렇게 요청해 봅니다

원인 추측보다 영향 범위부터 확인해 줘.
추가 변경을 멈추고 증거를 정리해 줘.
임시 안내와 복구 방법을 제안해 줘.

오접수·기록 오류·정보 노출이 의심되면 우선 영향을 차단합니다

“안 돼요”를 재현 가능한 설명으로

관찰한 사실	언제·어디서·어떤 기기로 무엇을 했는가
기대와 실제	신청 결과가 보여야 하는데 화면이 멈춤
첨부할 근거	재현 순서·가린 화면·오류 문구·직전 버전



이렇게 요청해 봅니다

먼저 원인 후보와 확인 방법을 제시해 줘.
최소 범위로 수정하고 같은 순서로 재검증해 줘.
원본과 데이터는 보존해 줘.

비밀번호·API 키·학생 개인정보를 붙여 넣지 않습니다



되돌리기와 데이터 복원은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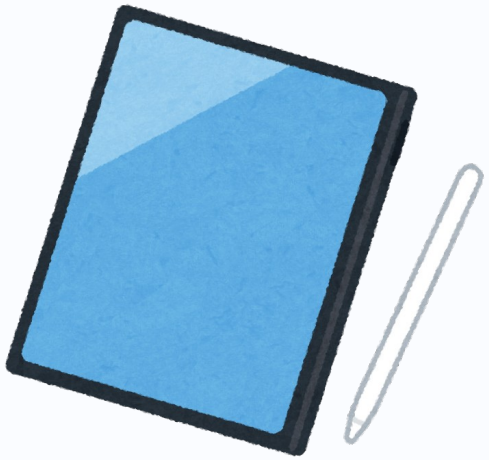
방법	무엇을 바꾸나요?	먼저 확인할 것
버전 되돌리기	이전 코드·화면 버전으로 전환	데이터 구조·설정과 호환되는지
데이터 복원	백업·복구 지점의 기록을 복원	그 뒤의 새 기록이 사라지는지
부분 수정	문제 지점만 고쳐 새 버전 배포	같은 증상과 핵심 동작 재검사

교육용 예시 · 실제 학교의 운영 기준은 확인해 적용합니다

코드를 되돌려도 접수 기록까지 자동 복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쳤으면, 학생의 과제를 다시 확인

같은 증상	문제가 난 기기·순서로 다시 시도합니다
주변 기능	찾기·선택·결과·관리자 확인도 점검합니다
공개 뒤	실제 주소에서 확인하고 복구를 안내합니다



이렇게 요청해 봅니다

변경 내용과 되돌릴 버전을 기록해 줘.
수정한 증상과 주요 사용자 과제를 검증해 줘.
배포 후 공개 주소의 동작까지 확인해 줘.

코드 수정·테스트 통과·배포 성공·실제 사용 확인을 구분합니다

정기 점검을 작고 꾸준하게

주기 예시	점검할 일	남길 기록
신청 기간 전·변경 직후	대상·일정·정원·링크·핵심 신청 흐름	확인한 주소·기기·담당자
매주	마감된 동아리·문의·막힌 기능·피드백	수정할 일과 우선순위
매월·인수인계 때	백업·복원 절차·권한·비용·의존성	점검 결과와 다음 점검일

교육용 예시 · 실제 학교의 운영 기준은 확인해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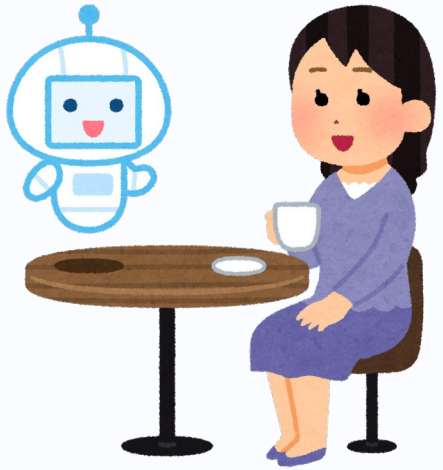
제안한 주기입니다 · 실제 학사 일정과 학교 운영 기준에 맞춥니다

다음 담임·업무 담당자도 이어서 쓰게

프로젝트 지도 원본 폴더·주소·호스팅·담당자를 적습니다

운영 기록 현재 버전·배포 방법·알려진 문제를 남깁니다

복구 준비 이전 정상 버전·백업 위치·연락 순서를 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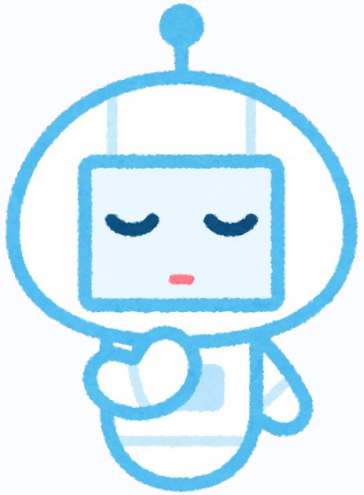
이렇게 요청해 봅니다

처음 맡은 담당자를 위한 운영 안내를 정리해 줘.
소스·공개 주소·배포·점검·복구 절차를 넣어 줘.
비밀값은 적지 말고 관리 위치만 안내해 줘.

계정은 학교 기준으로 관리하고, 비밀번호를 문서에 적어 공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만들고, 학생의 피드백으로 고쳐 보기

오늘 · 8분	불편 찾기 1분 → 요청 3분 → 동료 피드백·수정 4분
다음 사용 때	실제 학생이 써 보고 남긴 피드백으로 다시 수정
그 이후	담당자·점검일을 정해 재검증·장애 기록·유지보수



아이디어 → 분명한 요청 → 실제 학생 테스트 → 수정·점검을 반복합니다

남해고 선생님의 AI 실무 지도

아이디어를 수업과 학교 업무의 변화로 이어갑니다

01 문제 정하기	수업 준비·평가·학급 업무에서 반복되는 불편 하나
02 구체적으로 요청	교과·학년·목적·결과 형식·완료 기준을 함께 설명
03 원본과 학생 기록 보호	원본·버전·백업을 구분하고 실습에는 가상 자료 사용
04 학생과 교사에게 테스트	설명하기 전에 직접 쓰게 하고 막히는 행동 기록
05 작은 범위로 개선	피드백을 수정 작업으로 바꾸고 같은 과제로 재확인
06 다음 담당자에게 연결	점검일·배포·장애 대응·복구·인수인계 방법 남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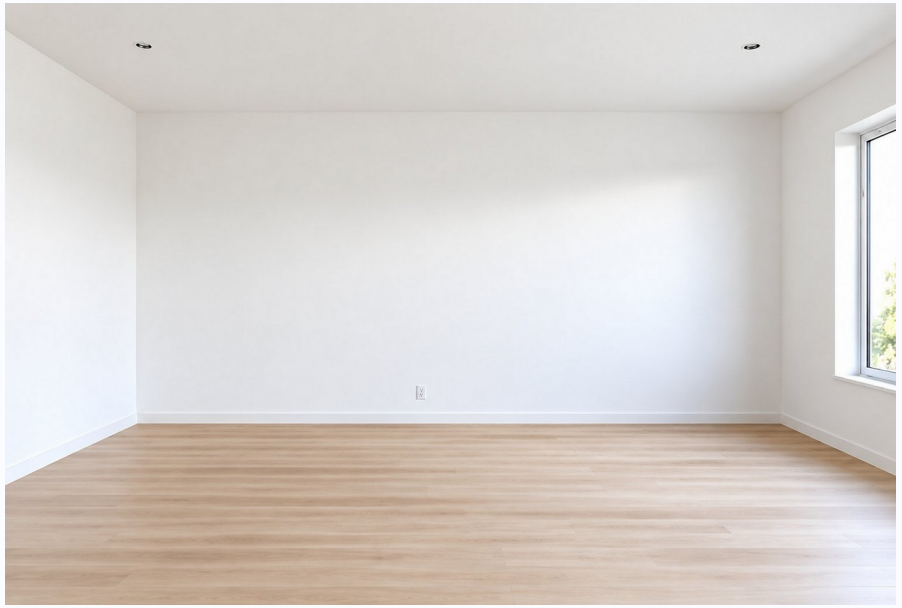
이 방에, 나를 담아 봤습니다



“이 방에 니가 나에 대해 아는 모든것을 채워봐 좀 과장해서!”

한 번에 완성하지 않고, 이렇게 고쳤습니다

시작은 빈방 사진 한 장



01 맥락을 소품으로

업무·프로젝트·관심사를 시각화

02 용도와 구도를 지정

“16:9 배경화면으로, 소품은 유지”

03 바꿀 곳만 다시 요청

“깨진 한글을 고쳐 줘, 방은 유지”

이번에 쓸 정보 확인 → 구도·창문 보존 → 한글·작은 글자 확대 검수

이 사례의 4K 파일은 생성 원본을 확대한 결과입니다.

선생님의 교실도 한 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먼저 네 가지만 적습니다

담당 활동 [ ] 참여 대상 [ ]
나의 관심사 [ ] 꼭 지킬 것 [ ]

사진과 함께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이 정보를 상징하는 소품으로 나의 교실을 채워 줘.
방의 구도·창문·채광은 유지하고, 규모만 조금 과장해 줘.
사용할 정보를 먼저 정리해서 내가 확인하게 해 줘.
확인한 뒤 이미지를 만들고, 수정할 곳은 하나씩 고쳐 줘.

업무·관심사 적기 1분 → 이미지 만들기·수정 3분 → 소품 설명하기 1분

실명·연락처·학생 기록 없이, 업무와 관심사만으로 연습합니다.